

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

운영회위원장

유치원장



회의 일시 및 장소 : 2015년 2월 2일(월요일) 저녁 18:30, 유치원 1층 빛반 교실

참석 위원 : 학부모위원(4명) - 김진경, 김윤희, 정인옥, 김지영
교원위원(4명) - 양순실, 조문숙, 백윤미, 마혜란

의사일정

1. 2015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검토 및 자문
2. 2014학년도 운영위원회 운영평가 및 개선방향

○ 간사 : 오늘 모임은 총 두 가지 안건에 대한 회의로서 2015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검토 및 자문과 2014학년도 운영위원회 운영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. 먼저 2015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.

부모님들 의견 중 간식으로 요구르트, 주스 나오는 것에 대한 따뜻한 차나 과일 드으로 개선 요구가 한분 있으셨습니다.

- 김진경위원 : 2번 정도는 괜찮지 않은지...
- 양순실원장 : 요구르트는 사실 견학 가는 날 편의성을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. 사실 유아들에게 제공할 과일의 종류가 많지 않기도 합니다. 귤, 바나나는 조리사님께서 준비하시기도, 아이들이 먹기도 좋은데, 사과나 배, 감 등은 씻고 깎고 전날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과일이라 조리사님 두 분께서 점심준비와 맞물려 힘이 들기도 합니다.
- 김지영위원 : 저는 어린이집에서 죽, 스프 등의 간식이 나왔었기에 음료위주의 간식에 당황스러웠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침을 잘 챙겨 먹이려고 노력해요.
- 양순실원장 : 저희도 가끔 스프를 넣을 때도 있는데, 어린이집이나 에듀케어는 아이들 등원시간이 일러 아침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죠.
- 김윤희위원 : 우리 애들은 요구르트 좋아하는데, 엄마에 따라서는 예민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이들 건강관련해서요. 다는 아니어도 다른 것 대체도 고려하면 어떨까요?
- 김지영위원 : 간식을 랜덤으로 좀 더 다양하게 하면 어떨까요?
- 양순실원장 : 개학 후 간식의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. 아이들 점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. 그러나 우선 가정에서 유아들이 아침을 꼭 챙겨 먹고 등원할 수 있도록 협조도 부탁드립니다.

- 간사 : 소세지나 햄 보다는 나물반찬 위주의 급식제공을 원하시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
- 양순실원장 : 사실 저또한 그런 생각으로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단체 급식이 고, 선생님들이 지도하시기에 학기초부터, 주로 메뉴 구성이 그렇다면 힘듭니다. 이에 유아들의 적응에 맞춰 숙주, 콩나물, 도라지, 시금치 등 나물의 종류도 다양화하고 있어요.
- 김진경위원 : 우리 아이는 유치원 다니면서 편식 개선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.
- 김윤희위원 : 단체급식이니, 가끔씩 소세지, 햄 등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.

- 간사 : 이번에는 방학이 길다는 의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.
- 김진경위원 : 주변 얘기 들으면 보통 2주~3주 정도라 그런 거 같아요.
- 양순실원장 : 근처 유치원들은 방학기간이 비슷하고, 또 종일반은 1주일만 방학입니다. 유치원에서는 보수, 개선공사도 하고 선생님들은 당직을 서며, 연수를 받는 등의 일을 하는 기간입니다. 유아들도 휴식을 취하고, 유치원도 교육환경, 내용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. 이에 방학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.
- 간사 : 맞벌이가 아니시라면 자녀가 더 크기 전에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합니다.
- 정인옥위원 : 상대적인 것 같아요. 공립유치원이나 ○ㅎ유치원은 거의 6주정도 하던데요. 그에 비하면 4주는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아요. 나중에 학교 갔을 때 방학도 생각하면요.

- 간사 : 아이들 생활에 대한 키즈노트 드의 앱을 활용한 건의가 의견조사 때 마다 1~2분 있으세요.
- 양순실원장 : 어린이집에서 그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들의 말씀인 듯 한데, 교사들이 수업과 원아관리에도 바쁘는데 매일 그 내용을 핸드폰을 입력하고 하는 게, 효율적일까요? 저희 선생님들은 수업 시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기도 하구요.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요? 키즈노트는 계획하지 않고 있음을 거듭 밝힙니다.
- 김윤희위원 : 우리 애들 때 받았는데,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더라구요. 결국 잘 안 보게 되고.
- 김지영위원 : 홈페이지를 더 활성화하면 어떨까요? 신입유아가 있다거나 아이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과 내용을 더 탑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- 마혜란위원 : 새로 온 친구를 소개하는 것은 참고할만 하네요. 그런데 사진에 신경쓰다보면 아이들을 놓칠 수가 있어 걱정선에서 하려고 합니다. 이 점은 양해바랍니다.

- 간사 : 이번에는 종일반을 하는 학부모님 몇 분이 운영시간, 귀가차량 운행에 대해 의견이 있으셨습니다. 사실 운영시간은 종일반 하원이 4시부터 하는 유아들도 있는데, 더 늦게 까지 하는 건 운영상 어렵고, 저희는 에듀케어가 아닌 일반 종일반이라 어렵습니다.

- 양순실원장 : 근무하는 교사의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관리가 어렵고, 그것은 유아교육에도 영향을 안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종일반 운영시간이 길어지면 교사들도 당직근무로 함께 늦게 되는데,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의 질이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. 이에 종일반 운영시간은 현행대로 합니다.
- 김윤희위원 : 교사의 근무가 늦어져 영향을 주는 건 반대입니다. 사실 이것은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.
- 김지영위원 : 그럼 종일반 하원 차량을 운행하면 어떨까요? 부모님이 데리러 올 수 없는 경우, 학원으로 연계하는 것 같아요.
- 정인옥위원 : 유치원 좋아서 추천하고 싶은데 직장 다닐 경우, 종일반 하원 차량 때문에 어려워 하더라고요.
- 양순실원장 : 종일반 귀가 차량 운행 시 총 5코스를 합쳐 해야 하는데, 어려움이 있습니다.
- 김윤희위원, 김지영위원 : 차량비용을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? 차량은 5시나 5:30에 들구요. 설문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? 꼭 5시 이후 귀가를 의무사항으로 하고요.
- 양순실원장 : 그러나,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운영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.

- 간사 : 다음은 방과 후 특성화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. 과목들에 대해서는 모두 만족한다 이상이 나왔습니다.
- 김진경위원 : 참여수업 때 함께 과학을 할 때마다 그냥 놀이로 진행되지, 개념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부족하다 느꼈어요. 아이들에게 사실 설명하기도 어렵고.
- 양순실원장 : 그래서 업체와도 협의하고,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놀이체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.
- 정인옥위원 :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참 잘하더라고요. 영어강사가 아이들의 수준을 잘하는 아이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됐어요.
- 양순실원장 : 아닙니다. 저희는 교재도 1주일에 1번을 최소화하고, 영어선생님께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더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참여수업은 행사라서 아무래도 진행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어요. 평소에는 매일 수업이 이뤄져 아이들의 반응과 속도에 맞춰 진행합니다. 담임교사도 꼭 함께 참관하여 피드백을 합니다.
- 김지영위원 : 영어와 물편은 교재가 있고, 과학은 활동지, 체육은 신체활동이니까 미술이랑 코엔코는 중간에 가정에 오는 자료가 없어서 교육을 확인하기가 그래요.
- 백윤미위원 : 미술은 입체작품은 평소 유치원에 전시했다가 보내드리거나 수료, 졸업 시 큰 파일로 작품집이 나가고, 코엔코는 음악활동이라 활동지보다는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.
- 양순실원장 : 물편은 블록으로 3년 하다 보니, 다소 흥미를 잃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어, 올해 새롭게 기어블록을 추가하여 5세반 물편의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.

- 간사 :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운영평가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. 통신문과 홈페이지로 공지는 했으나, 참여가 저조한 듯 한데, 카페운영은 어떤가요?
- 김진경위원 : 거의 우리들만 하는 것 같아요. 주변 학부모들과 교류가 많은 학부모가 위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.
- 양순실원장 : 뭔가 건의,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학부모위원이나 카페를 통해 하고, 꼭 상정해서 나눌 것을 정해 회의한다면 실효성이 있을텐데. 사실 한 두 분의 들리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운영방법을 바꾸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학부모 의견조사지도 보내드리는데, 회수율이 70%대에 그쳤어요. 다각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하나, 늘 참여가 아쉽습니다.
- 김윤희위원 : 카톡과 카페의 중간단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회의자료를 인쇄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? 아니면 학부모위원이 회의내용을 요약해서 카페에 공지하거나요.
- 양순실원장 :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다 올려도 보시는 분은 몇 안 되더라구요. 2기 운영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
- 김지영위원 : 운영위 회의도 시기를 정해 2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?
- 양순실원장 : 그 또한 2기 운영위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
- 간사 :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 모두 나눴습니다.
1기 운영위원회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. 2015학년에는 졸업과 관련해 보궐선거로 위원을 뽑아 2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.

기 록 자 : 조문숙(인)